

## “예비고3 겨울방학,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?”

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@naeil.com



거주  
서울 구로구  
구로동



자녀  
고2, 대3



구독 기간  
9개월

### 〈내일교육〉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?

대학 3학년인 첫째 아이가 고등학생일 때 처음 구독했고 둘째 아이가 고2가 되면서 다시 구독을 신청했어요. 첫째는 교육특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수시보다는 정시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했는데 둘째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수시를 준비 중입니다. 첫째와는 입시 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기사를 꼼꼼하게 읽으며 공부하고 있어요.

###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



### 2023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\_ 송실대 사회복지학부 백현서 교과 개념으로 다시 본 뉴스, 사회적 약자 만드는 '불평등'에 눈뜨다

“우리 아이의 진로와 비슷한 학생이 소개되면 눈여겨 봅니다. 인문 계열은 자연 계열보다 주제를 찾고 심화 연계 학습을 하는 게 어려운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.”



### WEEKLY THEME\_ 2026 수시 지원 가이드 학생부 교과전형 편 내 성적에 맞는 대학은? 초간편 6장책

“작년에는 의대 정원, 올해는 불수능, 내년은 현 수능 체제의 마지막이네요. 매년 입시마다 변수가 있지만 항상 꼼꼼하게 교육 이슈를 분석해줘서 조금은 걱정을 덜었습니다.”

## 〈내일교육〉에서 눈여겨보는 기사가 있나요?

교과 연계 주제를 찾아 진로와 연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‘선배들이 들려주는 전공 메타버스’나 ‘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’를 읽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.

## 요즘 자녀 교육과 관련해 어떤 점이 고민인가요?

중위권 학생을 위한 기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. 최근 입시 설명회에 두 번 다녀왔는데 대부분 상위권 학생 중심이더라고요. 현 수능 체제의 마지막인 2027년 대입은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요. 첫째 아이 때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최근 입시는 변화가 워낙 많고 불확실해서 더욱 불안하네요.

## 〈내일교육〉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?

둘째가 준비 중인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 수능도 준비해야 하니 부담이 가중되네요. 여력이 된다면 논술전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 일단 교과 성적을 올리고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첫째 아이는 정시를 준비했지만 논술전형으로 합격했는데 자연 계열이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.

둘째는 사회복지학과를 염두에 두고 있고 논술도 준비해야 하는데 대학마다 논술고사 유형도 다양해 혼자 준비하는 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.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데 대학별 논술고사의 특징을 비교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이번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하는데 예비 고3이 겨울방학을 현명하게 보낼 수 있게 다양한 정보와 공부법을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. @



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.  
“안녕하세요! 〈내일교육〉 편집부입니다.”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,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.

## Reporter's A/S

항상 불안한 수험생에게 합격생의 수기만큼 알차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없겠죠. ‘선배들의 전형별 합격기’는 교과전형과 논술전형, 정시전형으로 합격한 여러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보세요.

본지 1202호  
‘선배들의 전형별  
합격기 논술전형 ⑩ 합격  
이끈 나만의 무기, 수능과  
가이드북’ 기사 참고

